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최승호박사.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다. 현대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아동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사회 심리적인 발달단계에 의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부모의 기독교 세계관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혼합되어 있거나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부모의 세계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세계관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주제어: 가정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잠재적 기독교 교육과정.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가정교육에 중요한 초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는 “인성 교육”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가진 경쟁구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학업을 최우선에 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경쟁 우선의 교육이 가져온 여러 피해들을 새롭게 인식하며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인성교육이다. 현재 인성교육을 논하는 많은 단체나 학자들 중 인성교육의 주체를 학교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표면적 교육과정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곳은 자녀의 연령과 활동 영역에 따라 차이를 감안해도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녀의 성장과정을 통해 또래집단에서 얻게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또래집단에서 배우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은 부정적인 경우가 다반사이다(Illich. 1970. 57).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는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가 영향을 받아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은 부모가 가진 세계관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세계관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인의 가정에서 신앙적 유산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전체가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독교세계관의 전이 또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독인 부모가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지만 아동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세계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세계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양상은 달리 나타나는데 자녀가 영아기나 유아기의 시기에는 부모의 권위에 순응하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가 적지만,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의사가 분명해지면 부모의 권위적 의사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자녀 개인의 의견을 존중받고자 하는 행동에 의해 갈등 내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견충돌이나 갈등에 대하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발달단계를 총 8단계의 발달 단계 중 5번째의 발달 단계로 규정하며 이 시기를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 등을 경험하며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로 보았다(임승권. 1995. 62). 폴 에겐과 돈 카우츠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성격에 따라 자녀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가령 권위있는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자녀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며 결과적으로 반항적이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허용적인 부모일 경우 자녀는 미성숙하고 자기 통제가 부족하며 충동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방임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자녀는 자기통제와 장기 목표가 부족하고 쉽게 좌절하며 비순종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Paul Eggen, Don Kauchak. 2006. 122). 이렇게 교육을 심리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발달단계의 특징에 의해 유년기 이후로 청소년기에 이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으며, 또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자녀의 성격이 형성되므로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의도된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단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을 통한 교육이 부모의 세계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영향받은 세계관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부모의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관의 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계관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의 기저가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부모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의 용어 유래

세계관(Weltanschauung)이란 용어는 독일의 근대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주관성과 객관성을 포괄하는 직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된 단어이다. 세계관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지닌 단어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19세기에 딜타이(Dilthey)는 철학과 세계관을 동의어처럼 사용했고, 20세기에 와서는 민족주의사상으로 세계관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딜타이에게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은 '세계, 자연에 대한 직관을 가짐'이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삶에 관한 앎,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앎'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딜타이는 세계관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시각으로 보았다.

인본주의가 유럽사회를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되었던 19세기중반 이후에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독교신학자들과 철학자, 교육학자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세계관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세계관은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사상 혹은 기독교문화관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최승호. 2010. 136-137).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의 신학자[1]들에 의해 신학의 영역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학문을 통해 인간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시각'이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 성경적인 세계관의 개념을 확립시켰다. 이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은 각자의 신학적 견해와 신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갈빈주의에서 출발하는 화란의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 있고,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단의 웨슬레주의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 또 개신교의 여러 신학적 견해를 포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관도 존재한다. 네덜란드 신학자들에 의해 세계관은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로워진 것이다.

2. 기독교 세계관의 기저(基底)가 되는 것들

한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배우기 열풍이 있었다. 지금도 소위 기독교 세계관 공부한 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거의 동일하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본적으로 신학적 견해와 신앙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시각이다. 소위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제목지어진 알버트 월터스의 저서에 기록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설명이 마치 기독교 세계관의 표본처럼 외워지는 웃지못할 광경이 한국 기독교계에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우 편협한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되고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는 전혀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세계관의 기저를 움직이는 관점을 찾아보고, 홈스쿨의 현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데올로기적인 견해

한국은 광복 이후 극심한 좌우의 사상적 대립 속에서 현재에 이르렀다. 70년의 시간이 흐르

---

1) 20C 네덜란드의 신학자들에 의해 세계관의 개념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Abraham Kuyper를 위시하여, Herman Bavinck, Herman Dooyeweerd, D.H.T.Vollenhoven과 같은 사람들이다.

는 동안 남북은 분단되고 동서 역시 지역감정으로 깊은 골이 파였다. 이런 대립에는 소위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의 스펙트럼이 그 배후에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상들을 크게 나누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사회를 양분화시키는 진보와 보수의 세력은 결국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첨예한 대립을 양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김상길. 2012. 181).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어떤 사상이든 자신의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사상적 견해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판단을 앞서 먼저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공방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시각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입각한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과 관점은 기독교인의 신학적인 배경을 넘어서 개인의 사상이 우선시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사상적 배경을 갖게 되는 몇가지 요인 중에 청소년기까지의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얻게 되는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정치적 입장이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이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입장을 별 거부감없이 받아드려 이후의 삶에 세계관의 기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정치적 성향은 드러난다. 사회나 역사 교과서에서 특히 정치적 성향이 짙어지는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움을 통해 교과서 저자들의 정치적 의도를 거부감없이 받아드리고 있다. 청소년기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성향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청년기부터 고착화되어 이후의 삶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앞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기독교 역시 신학사상에 따라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으로 나눈다면 이데올로기 역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 따라 진보성향 기독교를 선호하든지 보수성향의 기독교를 선호하는 형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형식에 따라서는 기독교 자체를 전혀 선호하지 않는 진보적 성향도 있다.

이데올로기의 성향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기독교 세계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성향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호의적 내지 거부적 또는 무대응적인 반응을 보이게 한다. 이때의 반응은 기독교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이미 자기에게 선입견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데올로기의 성향이 기독교 세계관에 앞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드리는데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승호. 2010. 144).

2) 유교적 견해

한국사회는 조선시대에서부터 뿌리내려진 유교사회이다. 현대에 와서 많은 부분에서 유교적인 성향이 없어져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유교적 가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가치를 지닌 사회이며, 체면과 예를 중요시 되는 사회이다.

개신교가 유교의 전통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00년대에 서양문물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들어온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크다. 유학자들 중 실학파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해서 점차 신앙으로 받아드리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이 조선사회에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전파되자 당시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정치 및 종교 이념과 사상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1785년 조선 조정에서 로마 가톨릭을 이단사설(異端邪說)로 규정하고 금지령을 내린 후 탄압하기 시작해서 1801년에 신유사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 이후 조선이 개항하기 전까지 박해는 계속되었지만 조선의 개항이후는 개신교의 선교와 로마 가톨릭의 선교가 세계선교사에 이정표가 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오강남. 1991. 144-149).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교를 종교를 받아드린 사람들은 기

독교에 대하여 사상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하게도 유교적 가치와 개신교중 장로교의 가치는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이 두 집단이 공동적으로 지닌 가치 중에는 유교에서의 웃어른을 섬기는 부분이나, 장로교단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부분들이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고등윤리의 가치들이 기독교의 생활 윤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선교 초기에 장로교가 조선말기의 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 진리와 유교의 관점이 비슷한 것 같으나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기독교와 조상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예로부터 시작하는 유교와 같을 수는 없다. 단지 드러나는 모습과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돈하고 있다.
때문에 기독인들이 신앙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자칫 유교적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유교적인 성향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목회자가 마치 유교적 관점에서 선생이나 웃어른의 개념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선 유교적 가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샤머니즘적 성향
세계 어디에나 샤머니즘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으나 한국사회는 고대로부터 샤머니즘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일종의 원시 종교로서 긴 역사를 갖고 많은 원시 부족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종교와 삶의 근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분야에 관한 관념에 샤마니즘적인 요소가 아직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된다(장남혁. 2000. 146).
한국인들의 민족 성향 안에 있는 샤머니즘 요소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다른 종교를 받아드릴 때마다 혼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도 샤머니즘의 요소와 결합되어 한반도에 정착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종교들도 각자의 고유한 요소에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한국민들에게 뿌리내려져 있다. 성상숭배를 하는 로마가톨릭은 당연히 샤머니즘과 혼합되기 쉽지만,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민족성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샤머니즘의 요소가 한국에 개신교의 선교 이후에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신교의 유일신 사상은 샤머니즘에 있는 초자연적인 최고신과 혼돈을 일으킨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중 신자들의 구복적인 성향 속에서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김영동. 1994. 564-567).
한국의 개신교 신앙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혼합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도 같은 영향을 주었다. 즉 개신교가 가진 신앙의 바탕위에 세워진 신학이 아닌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혼합되어 변형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의외로 많다. 웃지못할 실예로 점집을 광고하는 간판에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쓰여진 간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구복적인- 동기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샤머니즘의 요소와 기독교 신앙이 혼합된 신자들의 세계관 속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샤머니즘의 세계관에 기독교가 드레싱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4) 민족주의적 성향
민족주의는 타민족이나 이웃나라의 부당한 요구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 자립

을 위한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기본 성격 속에는 상대적이고 배타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나라 근대사에도 조선의 개항 당시 외세의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외세에 대해 배격하는 성격을 가지며 민족의 독립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민족주의가 지닌 특징 중 하나는 근본주의적이거나 일종의 비합리적인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이념 또는 운동으로의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의 개념이 이념과 접목될 때는 국가주의, 파시즘, 또는 인종주의와 밀접한 친화성을 가지게 된다(최장집. 2008. 19). 즉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다른 이념에 대하여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족이념은 태생적으로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에게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가진 특성 중에는 종교에 대한 견해 역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민족성 안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민족종교의 성격을 띤 여타 종교적인 성향은 지극히 구복적이고 윤회적인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구복적이면서 윤회적인 경향을 지닌 여러 종교에 대하여는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민족주의 성향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외세에 의해 들어온 이방종교라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인들 중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기독교신앙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도 민족주의적 성향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인 만민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보다는 기독교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민족의 자주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집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교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교단이 따로 있다.[2)]

민족주의의 성향은 세계관의 더 깊은 기저(基底)에서 인간의 관점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시각을 지니지 못하게 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지니게 한다.

5) 신앙과 신학적 견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의 단초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영향과 확산이 일어났던 르네상스 이후 16세기 종교개혁시대 칼빈의 사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성국. 2003. 3). 성경에서 유래된 칼빈의 사상이 토대가 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 사상의 근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에게로 이어지는 성경의 중심사상이 토대가 되고 이 중심사상을 세계를 바라보는 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기독교 철학자 베니 판델발트(B. J. van der Walt)의 기독교 세계관 유형 5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gratia contra naturam)의 유형이다. 여기에서 자연이란 세상, 문화, 학문 등을 뜻하는 것이고, 은총은 기독교와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한 표현이다. 이 유형은 세상과 기독교는 상호타협 없이 반립(反立)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세상적인 가치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다. 이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은 오순절 신학 그룹과 초기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유형이다.

둘째, 자연 위에 있는 은총(gratia supra naturam)의 유형이다. 이 형식은 은총이 자연을 지

2) 한국의 개신교 교단 중에는 기독교장로회와 같은 교단은 한국 선교 초기에 신학자로 배출된 사람 중 김재준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소위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교단이 있다. 이런 교단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배하고, 특히 은총은 자연을 온전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학문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며 기독교신앙이 그것을 지배하여 더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로마가톨릭의 주도적인 세계관이다.

셋째,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gratia juxta naturam)의 유형이다. 이 형식은 이 세상에서 자연(학문)과 은총(신앙)이 각각 유효하고, 서로 절충하려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서로의 각자 영역을 인정하며, 그 양자 사이를 연결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전통적 루터파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기독교세계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gratia in naturam)의 유형이다. 이 형식은 자연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총이 자연의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여 자연 자체를 변화, 치료,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이 유형을 자연을 변혁하는 은총(gratia naturam transformans)이라고도 부른다.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는 이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을 따른다.

다섯째, 자연과 유사한 은총(gratia instar naturam)의 유형이다. 이 형식은 은총과 자연의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어떤 경우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은총이 발전했다고 하는 견해마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하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유형은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적 기독교세계관이다(조성국. 2007. 250).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모두 성경의 진정성에 대하여 인정하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며,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 · 인양성의 사실을 믿고 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종파간 기독교세계관은 종파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세계관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승호 2010. 146-147). 즉 기독교세계관도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는 정통교회들도 신학의 스텍트럼 만큼이나 다양한 신앙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성은 조직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고 정통교회들 간에 수용과 배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위 정통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신앙들의 각 색깔만큼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도 다양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신학의 틀에서 수용가능한 관점일 때 묵시적으로 양해되고 있다.

3.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신앙 교육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방법론의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기도하게 한다든지 좀더 적극적인 부모는 성경공부의 시간을 두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 교육에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신앙과 관련된 외부 활동을 하게 권장할 수도 있다. 이런 형식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신앙교육의 표면적 교육과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만 있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앙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세계관은 여전히 부모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신앙교육의 외형적 모습은 실천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세계관에까지 외형적 교육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세계관의 전이는 인간 내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교육자의 전인격을 피교육자가 자신도 모르게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는 것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세계관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1)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구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지식은 하나님에 이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진리의 궁극적 근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 단순히 지적으로 경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헌신을 포함하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계적 경험을 갖도록 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의미있게 배우고 책임있게 응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 세계와 지식의 본질은 또한 다양성과 상호연관성 및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방업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기에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Fower. 1990. 123).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자녀에게 세계관 교육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삶을 통해 세계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외부세계를 직시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 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2)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방법

기독교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기독교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 바라며 기독교교육에 적극적인 학부모는 교회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독교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에 대한 통념상의 행위인 표면적 기독교 교육과정을 가정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는 기독인들의 공통된 바램은 자녀가 기독교인으로 성장해서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반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바램에 따라 성장해주는 자녀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부모의 바램과 자녀의 현실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기독교교육을 실패하는 요인은 부모의 실천여부에 달렸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만큼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표준이 되는 기독교적인 삶을 요구할 때 그 자녀가 바라보는 시각의 부모는 이원론적인 모순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닮아 타인의 시각에서는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타인의 시각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때는 전혀 다른 행동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불행하게도 자녀의 시각에서 부모도 의식해야 할 대상이 아닐때는 일탈된 행동이 부모 앞에서도 나오게 된다. 이런 이중적인 자녀의 모습을 방지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는 형식의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행동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때의 배움이 자녀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실천을 통해 가르치므로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앙생활의 실천을 통해 가르친다.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기 원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가정에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며 신앙 생활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배운 신앙은 삶의 습관이 되어 자녀의 일생동안 늘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만큼 부모는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부분 중 가장 유용한 것은 가정예배라고 본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가정의 전 구성원이 함께 모여 당일의 생활상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관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부모가 직접 실천하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 헌금 생활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워갈 것이다. 이렇게 배운 신앙생활은 자녀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그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② 기독교 세계관의 본을 보임을 통해 가르친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자녀에게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을 자녀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

세계관은 신념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파악할 수가 없다. 개인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해 개인의 세계관은 드러난다.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세계 속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하며, 그 반응은 무엇인가에 따라 기독교인 개인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녀에게 보이게 되는 세계관 역시 자녀와 함께 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이때 자녀는 부모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부모의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고, 부모의 세계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자녀는 부모의 세계관을 따라 닮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바라는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도제식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③ 부모는 늘 자기반성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확보해야 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자이다. 부모의 세계관이 자녀에게 여과없이 전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 앞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는 늘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의 행동과 삶의 형태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자기반성적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표본으로 행동하기 위해 자기반성의 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경관'과 '신앙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해석관점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신앙의 관점이라고 본다. 그렇게 때문에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늘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실천을 위해 신앙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의 시각에 부모의 행동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표

준적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역시 성경에 근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행동 양식을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모의 이런 노력과 자기반성의 모습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자녀의 삶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 한다.

결론

본 글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도를 했다. 먼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용어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하여는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에 의해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고, 그의 해석학적인 방법에서 시작된 시각은 네덜란드의 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만들어 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의 기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폈다. 세계관의 기저(基底)는 첫째 이데올로기적인 견해로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갈라진 사회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데올로기적인 간극이 생길 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둘째 유교적인 견해로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유교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유교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역행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셋째 샤머니즘적 성향으로 한국 민족의 뿌리 깊은 정신세계에 고대로부터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 기독교 문화 속에도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넷째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한국인 조선 개항 당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잃는 고통을 받으며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마저 부정적 이미지가 구축되었고 그 요인으로 인해 기독교 세계관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다섯째 신앙과 신학적 견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신앙과 신학의 관점인데, 신앙과 신학은 매우 다양한 스텍트럼을 형성하므로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란 개개인의 관점이 동일할 수 없고 매우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단 정통교회들이 지향하는 신학의 관점을 수용하는 개인의 세계관은 정통의 기독교 세계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분야를 다루었는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세계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도제식 기독교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에서 본을 보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자녀의 신앙을 지도해야 하며, 부모의 시각를 통해 자녀가 기독교 세계관을 비추어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교육방법은 아마도 교육방식 중에는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를 통해 직접 보여지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만큼 부모는 자녀 아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기 원하는 만큼 부모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독교적인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Fowler, S, Brumelen, V. H. & Dyk, V. J.(1990) (Eds.) *Christian schooling: Education for freedom*. South Africa: IRS.

Illich, I.(1970).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Paul Eggen. Don Kauchak. (2004). *Ed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6th edition-* published by Peason, Inc, publishing as Prentice Hall, Copyright

신종호 외 6인 역 (2006).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서울: 학지사.

김상길 (2012). "현대교육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교육현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시각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1). 179 ~ 210.

김영동 (1994). "샤머니즘적인 영성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개신교의 선교적 과제" 장신논단 10, 554-583

오강남 (1991).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기독교사상』 35(11), 144-180.

임승권 (1995).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장남혁 (2000). "샤머니즘" 『선교와 신학』 6, 143-181.

조성국 (2003).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부산: 고신대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조성국 (2007). "네덜란드계 기독교교육철학에서 일반교육이론을 연구하는 방법" 『복음과 교육』 4. 230-255

최승호 (2010). "설교자와 청중의 설교이해에 관한 연구-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기초로-"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최장집 (2008). "민족주의, 평화, 중용" 서울: 까치글방

최승호 박사의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논찬

장유정 박사 (횃불트리니티신대)

I. 논문의 요약

본 논문은 현대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의 문제에 대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다음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는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유래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에 의해 그 독특한 관점이 만들어 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적 견해, 유교적 견해, 샤머니즘의 성향, 민족주의적 성향, 신앙과 신학적 견해 등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세계관의 기저를 움직이는 관점들을 제시함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 충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 충돌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자녀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부세계를 직시하는 모든 분야에 기독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제식 기독교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부모는 가정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하며, ‘성경관’과 ‘신앙관’을 근거로 늘 자기반성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II. 논문의 공헌

본 논문은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진 세계관의 기저를 움직이는 관점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견해 및 유교적 견해가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및 가치보다 우위에 작용하거나 혹은 기독교적 신앙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인의 샤머니즘적 성향 및 민족주의적 성향이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닌 왜곡된 시각을 지니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기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성경과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하여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앙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연구자의 설명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만이 옳고 자신과 색깔이 다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신학의 틀에서 이단적 신앙의 모습은 배척되어야 하지만 자신과 다른 신앙의 표현 모습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죄 및 배척은 삼가 해야 함과, 수용 가능한 다양한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가정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의 증가와 잘못된 사교육 열풍,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간과하거나 교회의 책임으로 돌리기 쉬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그 삶을 통해 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가정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도제식 기독교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교회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하고,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등 표면적 교육과정만으로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완성될 수 없으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임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일관성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것과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관을 제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라는 학무모의 질문에 “부모님들 자신이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답한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외침을 떠올리게 한다.[1]

III. 논문의 아쉬움 및 질문

위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과 질문이 남는다.

첫째,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기저가 되는 요소들로 연구자는 이데올로기적 견해, 유교적 견해, 샤머니즘적 성향, 민족주의적 성향 및 신앙과 신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의미가 불분명해 보인다. 2장 "기독교 세계관의 기저가 되는 것들"에서는 "홈스쿨의 현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의 기저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데올로기적인 간극이 생길 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부모와 자녀와의 세계관의 충돌의 원인으로서 세계관의 기저가 되는 요소들을 제시했다면,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자녀의 또래집단의 영향 등 실질적인 부분도 다루었으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적용이 가능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둘째, 연구자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계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본 논문이 전개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그 해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가르치는 도제식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해답과 도제식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가정에서 전반적인 삶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부모의 본보기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이러한 당위적인 주장에 덧붙여 자녀들과 부딪치는 일상의 생활 속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물질만능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들로(딤후 2:15) 세워나가길 기대하며, 간과하기 쉬운 가정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해준 최승호 박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 박형숙. 2015. "아이교육 방법? 당신들이나 잘 사시오." 오마이 뉴스(2015년 4월 30일).